탈진(脫盡)과 직진(直進)의 신앙

(욥기 1:1~5)

1.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3.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 마리요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4.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탈진(脫盡)과 직진(直進)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탈진(脫盡)과 직진(直進)의 신앙'

탈진(脫盡)은 기운이 다 빠져서 완전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에도 탈진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40장 28~31절을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실제로 새 힘을 얻지 못할지라도 말씀만으로도 신선함이 마음에 가득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탈진신앙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기가 막히게도 욥기서의 주제는 탈진과 직진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흔히 욥기서의 주제를 의인의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정론(神正論)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신정론'이란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악하고 무자비하고 참혹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도 이러한 의미에서 의인의 고난이 주제일 것이라고 주석마다 평가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1절에 나타났고 8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하고 8절에서 반복하여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이 주제입니다. 의인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남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전체의 흐름 안에서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앞서 에스더서를 공부했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은 선민 됨이 말살 될 수 있음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선민 됨이 말살되는 이유는 제1계명을 지키지 않음입니다. 하만에 대한 경배를 신에 대한 경배로 인식한 모르드개가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 경배를 거부함으로서 민족말살의 위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 선민들은 선민다움의 말살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 극복은 결국 제1계명을 다시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서가 선민다움의 핵심으로 제1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에 오는 욥기서는 자연스럽게 제1계명을 지킴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과 8절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고난당한 욥과 그를 찾아온 친구들의 논쟁을 통하여 드러내고, 아름답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욥기서는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욥기서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탐(תם)으로서 '완성하다, 끝내다, 소진하다는 뜻의 타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목의 탈진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됩니다. 탈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갈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뜻의 온전하다는 말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서 흠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큰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대통령선거 기간에 후보들이 상대를 네거티브 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의 흠을 찾아내서 공격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온전하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네거티브할거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온전함이 완전하다, 끝내다, 소진하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유가 무엇일까

요?

예를 들어 마라톤을 할 때에 최고의 경기를 했다면 달리고 나서 힘이 한 방울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뛰는 데 소모해버리는 것이 가잘 잘 뛴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힘이 없도록 다 써버리는 것이 욥기에서 말하는 온전함입니다. 100m 달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0초 동안 만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온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될 일을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흠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온전함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탈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다시 표현해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쓰며 살아갑니다. 자녀에게 마음을 쓰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마음을 써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마음을 써서 선거유세를 했습니다. 이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 쓰는 바람에 이 세상 다른 일에 대해서는 지불할 마음이 남지 않은 자입니다. 마음의 지갑을 열어보아도 남은 마음이 없습니다. 마치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는 바람에 이 세상일에 대해서 마음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탈진시킬 정도로 썼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쓸 수 없을 때에 천국은 주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의 힘이 이 세상을 대신 살아가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 마음을 하나님께 쓰다 보니 탈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하려해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탈진했기에 이제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살아주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에서 말하는 온전함이 뜻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다 써서 세상에 대해서 탈진된 상태입니다.

본문에서도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면 받은 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노심초사 안절부절합니다. 혹시 잔치를 하다가 즐거움에 겨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께 신경을 쓰며 긴장된 삶을 살았기에 잠자리에 들 때면 늘 탈진하고 맙니다.

이런 구절을 보자면 우리에게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런 온전함은 종교적 천재들에게만 해당되

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탈진은 종교적 천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 벌겠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다가 탈진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양상이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함인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완전한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녀의 형통을 위해서 애쓰다가 녹다운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자녀에 대해 완전한 마음가짐을 가진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유세하는 것을 보면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체력이 남아나겠나 싶을 정도로 완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가나 연예인들도 탈진할 정도로 자기분야에 대해 일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어떤 대상을 향하여 완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직하다'라는 말에는 '곧다, 직선이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정직함은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마음이 움직인 궤적에 관한 모습입니다. 마음이 좌회전 우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등변삼각형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등변삼각형은 두 빗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두 빗변의 꼭짓점에서 수직으로 선을 그어봅니다. 이제 그 꼭짓점을 하나님으로 상정하고 수직으로 내려 그린 선을 마음의 궤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정직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꼭짓점을 향해 수직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밑변으로부터 꼭짓점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직선을 향해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꼭짓점을 거쳐서 좌나 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다른 꼭짓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로 수직상승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직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회전하고 우회전해서 꼭짓점을 거쳐서 빗변을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정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실질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은 밑변 중앙에서 우로 움직여서 다른 꼭짓점을 만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면 이것은 직선이 아닌 꺾인 선이 되고 정직이 아닙니다. 또한 꼭짓점이 자녀의 형통이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이라는 꼭짓점을 향하지만 수월하지 않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럴 때에 직선이 아니고 꺾이게 됩니다.
우편에 있는 꼭짓점이 좋아함이었다면 좌편에 있는 꼭짓점은 싫어함입니다. 원수라는 꼭짓점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질병이라는 꼭짓점을 떨쳐버리기 위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녀의 실패를 싫어하고 사업의 실패가 싫고 가난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찾아가는 마음의 궤적은 꺾인 선일 수밖에 없고 정직이 아닙니다. 좋아서 갖고 싶고 싫어서 떨쳐버리고 싶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좌우로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은 그런 문제의 꼭짓점을 떠나서 수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직입니다.

온전함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탈진하도록 사업에 전념하고, 자녀를 키우는 엄마가 탈진하도록 전념하듯이 하나님께 전념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마음의 궤적이 다른 대상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일직선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과 정직을 합쳐서 하나님 경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곧 삼각형의 밑변 중앙에 있던 마음이 양 옆의 꼭짓점으로 움직이지 않고 직선으로 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상을 향하여 좌우의 꼭짓점으로 움직여서 마음을 정착시켜 놓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성취하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악입니다. 마음이 우로 움직여서 돈을 벌고자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기개발서도 읽고 대출도 받고 자문도 구하는 과정에서 교회도 한 번 나가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탈진할 정도로 행하고 있음이 악입니다.
욥기는 이러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십자가 생활화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욥기를 해나가면서 십자가 생활화의 의미가 더욱 더 활성화되어서 살아나고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부터 욥기를 시작합니다. 이 욥기를 통하여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과 그 효과와 매력에 완전히 뼛속까지 심취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